

# “광주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큰 격차...편애 아닌가”

## 광주시·전남도교육청

### 학교별 최고·최저 18억원 차이

광주시교육청의 특정 학교에 대한 '편애' (?)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해자(광주 서구 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43개 일반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액이 가장 많은 학교와 최저 학교의 차이가 1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3년 간 43개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 광주 A고의 경우 지난 2013년 9억7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 ▲2014년 13억7000만원 ▲2015년 5억3100만원 등 28억 78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최저액인 10억81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친 B고를 비교하며 학교별 지원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B고의 학생 수(1120명), 교직원(65명) 현황이 A고(학생 1180명, 교직원 72명)와 비슷함에도 지원액은 워낙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지원액만 놓고 보면 특정 학교에 대한 ‘편애’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아울러 최근 3년간 상위 5개교에 지원된 평균 목적사업비(23억9100만원)와 하위 5개교 지원액

(11억3800만원)의 격차도 언급하며 “행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종 지표들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17개 시·도 교육청 평가’ 중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의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률’이 49.15%에 불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6위에 머물고 있으며 예술동아리 운영 현황도 99.2%로 부산·대구·인천 등 9개 시·도(100%)와 달리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문화개발원 직원 고용승계 촉구 전당 콘텐츠 확보 방안 있는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시찰에서는 아시아문화개발원 고용 승계와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예산 확보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등 교문위 감사 1반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은 15일 오전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아 5·18민주광장, 어린이문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 나선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 1반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당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원, 정보원, 창조원, 예술극장 등 시설 일대를 1시간 여 동안 둘러봤다.

박 위원장은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아시아문화원 채용을 염두에 두고 지난 2년여 동안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문화전당 개관 준비와 콘텐츠 구축 업무를 맡아온 200여명의 직원 가

운데 17명 만이 아시아문화원 공채에 합격했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빠져있는 게 문제”라며 “전당 개관을 준비하던 아시아 문화개발원 출신 인력을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광주 일보 기자와 별도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진행될 아

시아문화원 직원 추가채용이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당 콘텐츠 개발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 예산과 별도로 전당이 추진하는 공연, 전시 등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예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국감 현장

### 한국사 국정화·누리예산 여야 극명한 시각차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정부 예산 떠넘기기 탓”



15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15일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 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 전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화 필요성 등 정부 논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첫 질 의자로 나서 단재 신재호 선생의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현 상태로라면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되고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서울 관악 갑)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를 통해 균형잡힌 역사관을 주장하지만 누가 믿을 수 있겠나”며 “역사관에 혼란이 초래되고 철저한 암기 과목으로 바뀌면서 역사 사교육비가 더 들 것이라는 설문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4명의 교육감도 “필요하지 않다”, “검정 교과서에 약점이나 모순이 있다고 개선해 가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반된 내용이 실릴 것”이라며 공

통된 목소리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당 의원들은 달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균형잡힌 역사관을 위해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엄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성과 창의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념 갈등에 따른 역사관의 혼란과 국론 분열, 정치적 공방은 안타깝다”며 국정화의 긍정성을 부각시켰다. 박인숙(서울 송파 갑)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교사와 교수, 학자가 아닌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대부분의 의원이 거론하는 등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기홍 의원은 “화장실도 못 고칠 정도로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한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경비로 추진한다면 정상적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사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과정 예산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놀라운 시설·규모...문화전당은 국가 보물”

“광주는 문화전당이라는 국가적 보물을 갖고 있다.”(새누리당 엄동열 의원)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 시찰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광주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문화전당 운영 등을 법제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엄동열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맡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규모가 축소돼 아쉽다”면서도 “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문화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문화전당의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문화전당이 문화적 다양

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국민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고 있고, 창작 지원체계에서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문화전당의 시설과 규모에 대해 놀랐다”면서도 “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는 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의 인구규모가 서울에 비해 적은 탓에 문화시장이 협소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해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문화전당을 방문해보니 생각과 다르지 않나?”라며 “광주의 문화저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험 리더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보다 큰 보험혜택과 한결 가벼운 의료비로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행복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이 한층 확대됩니다.
 

유방재건술, 캡슐내시경 검사 등 고비용 치료법, 첨단필수검사 및 고가 함양제 등 203개 항목에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	1,361,199원 '72	5,775,900원 '74	1,543,900원 '75	42.9%감소	85%감소(누적)
---	----------------	----------------	----------------	---------	-----------
- 3대 비급여 환자부담을 보다 덜어드립니다.
 

선택진료비 (특진비)	'72 15,436,000원 / '75 6,930,000원	52%감소
상급병실료	'72 15,172,000원 / '75 11,800,000원	21%감소
포괄간호서비스	'72 50만원(7일/기) / '75 1만4천원	71%감소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